

강진군,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 관련 간담회 개최

관내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 타 지역보다 높다는 주민여론 서민물가에 큰 영향 주는 유류판매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지난 1일, 강진군은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과 관련해 부군수 주재 간담회를 실시했다.

최근 관내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아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유류 판매가격에 군이 관여할 수 없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주유소 관계자, 시민단체 및 언론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민단체로 참석한 전문건설협의회장은 "자동차를 타고 광주, 목포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군 주유소가 휘발유를 100원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협주유소에서 현 상황을 고려해 적정 유류 판매가격을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농협주유소장은 "유류의 재고회전율이 낮아 비싸게 매입한 유류를 소진하기 전까지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면 리터당 4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게는 이 또한 쉬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도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언론사는 "유류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주유 후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며 "어려운 여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입장을 군에서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미자 강진군부군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관내 휘발유 가격도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유류 판매가격은 서

민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중 하나인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내 주유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에는 23개의 주유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9월 1일 기준 평균 유류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1,756.78원/ℓ, 경유는 1,865.3원/ℓ에 거래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 공청회 개최 산업특구 지정 위한 의견수렴

강진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쌀귀리 생산농업인, 농협관계자 및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강진 쌀귀리 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대상 지역 주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특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쌀귀리 특구 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정필요성,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발표했으며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쌀귀리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귀리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군에서는 쌀귀리 생산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쌀귀리연구회 임동주 회장은 "고품질 쌀귀리를 생산하여 쌀귀리 주산지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특구 지정에 농업인들과 함께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쌀귀리 특구 계획(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쌀귀리 가공시설 구축을 비롯한 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마케팅,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며 축제와 생태관광지를 연계하여 쌀귀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게 된다.

강진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쌀귀리 생산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한 후 이달 말경에 쌀귀리 산업특구 지정요청서를 지식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식벤처기업부는 강진군의 특구지정요청에 따라 연말까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지식벤처기업부장관)'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12월경 지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강진군은 230농가, 900ha 재배면적에서 연간 3,042톤(전국대비 65%)의 쌀귀리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로 지난해 '강진쌀귀리'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하반기 장학생 선발 247명 총 1억8천만원 지급

해남군은 지역 발전을 주도해 나갈 미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오는 9월 20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남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요건은 공고일인 9월 1일 기준 학생 및 학부모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선발인원은 8개 분야 247명이며, 성적우수, 저소득, 예체능특기자, 학교부정소년, 다문화 가정, 만학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농업인 육성 다문화가정 장학생과 만학도 지원 장학생을 신설하여 농수산업 특수목적고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력 인정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6개 분야는 해당학교장이 추천하고, 예체능특기자와 학교부정소년 장학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경우 해남군평생학습관(해남읍 교육청길 54)으로 장학금 신청서와 분야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과 부모의 소득, 수상실적 등 분야별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사업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선발결과와 10월중 발표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의신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실시

민·관 협력으로 봉사단체 신의회·클린24 등 참여해 방역·집안청소

진도군 의신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의신면 공무원들과 봉사단체 신의회 회원들이 의신면 침체마을을 방문해 소외계층의 집안 청소와 방역, 풀베기 등을 진행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을 위해 클린24(대표 박정)에서 방역을 무료로 실시해 질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신의회 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이 집에 돌아와서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소외계층 환경개선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의신면 관계자는 "소외계층을 위해 함께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 서비스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부산면, 추석 명절 맞이 향우 안부 살피기 나서

코로나19로 고향 찾지 못하는 향우·자녀 대신 부모님택 방문

장흥군 부산면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 향우 안부 살피기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와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신청을 받아 면장이 직접 고향에 거주하는 부모님택을 대신 찾아 뵙고 안부를 살피는 것이다.

부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우 부모님 안부살피기는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7가구 방문을 완료하였다.

부모님택을 방문하여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자녀들의 신청이 없더라도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가구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살피고 있다. 향우 안부살피기는 부산면행정복지센터(☎061-860-8339)로 9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부산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은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예전처럼 자식들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면장님이 직접 찾아 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방지영 부산면장은 "홀로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향우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리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첨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